광주시립발레단 공연

'발레 갈라 콘서트 #3. 클래식 명작발레'

↑광주시립발레단의 2019수시공연 '발레 갈라 콘서트 #3. 클래식 명작 발레'가 11월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서 내달 1일~2일
저렴한 가격으로 발레 접근성 높여 큰 호응

광주시립발레단의 2019수시공연 '발레 갈라 콘서트 #3. 클래식 명작 발레'가 오는 11월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아름답고 친숙한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진 각 발레 명작 하이라이트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발레단의 '발레 갈라 콘서트' 시리즈는 42년 발레단 역사와 역량이 집약된 시즌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명작 발레'라는 모티브를 가진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로 구성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고품격 발레를 선사하여 발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처음 선보인 2018 '발레 갈라 콘서트' 시리즈가 전회 매진을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되었다. 올해 2019 '발레 갈라 콘서트' 시리즈는 더욱 화려해지고 풍성해진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아 큰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발레 거장 최태지 지휘 아래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나폴리 파드뒤', '돈키호테 그랑파드뒤', '파리의 불꽃 파드뒤', '백조의 호수 아다지오'와 함께 창작 발레 '하늘빛 그리움 아다지오'처럼 새로운 작품을 함께 올린다.

이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기 전, 최태지 감독의 친절한 해설이 함께하는 '발레 톡,Talk!'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명작 발레 하이라이트와 함께 '라 실피드'의 감상법을 소개하여 발레 작품을 즐기는 다양한 시선을 제안한다. 관객들에게 작품의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발레 공연을 보다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명작 발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발레 갈라 콘서트 #3. 클래식 명작 발레'는 보다 많은 시민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전석 1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연 예매 및 정보확인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gjart.gwangju.go.kr, 티켓링크 홈페이지, 예약전화 1588-7890를 통해 가능하며,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2)522-8716 통해 문의 가능하다.

/오복 기자 boh@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내한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합' 맞춘다

내달 10일 예술의전당서 협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배우 톰 행크스에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조너선 드미 연출 '필라델피아'(1993)에는 음악 팬이라면 잊기 어려운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던 에이즈(AIDS)에 걸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주인공 앤드류 베켓(톰 행크스)이 자신의 변호사 조 밀러(댄젤 워싱턴)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역설하는 장면이다. 생의 불꽃이 곧 꺼질 베켓은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하는 오페라 아리아 '라 맘마 모르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약하는 칼라스의 탁월한 변주를 들으면서다. 필라델피아는 이 영화 배경이 된 도시다. 형제애라는 희랍어에서 파생했고, 한때 미국의 수도이기도 한 유구한 도시. 필라델피아는 영화 말고도 또 유명한 게 있다. 바로 오케스트라다.'

1900년에 창단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가장 미국적인 색채를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 교향악단이다. 묵직하기보다는 날렵하고, 화려한 색채를 자랑한다.

지휘자 유진 오먼디는 40여년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조련하며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키웠다.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5대 교향악단으로 손꼽힌다.

오먼디로 대표되는 필라델피아 사운드는 현재의 마에스트로 야닉 네제세겐 지휘 아래 보다 호쾌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내달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년 만에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에는 드보르작 9번째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한다. 드보르작이 미국에서 만든 작품으로 흑인영가나 인디언 민요에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곡이다. 클래식 음악에 익숙지 않은 일반 시민도, 4악장 주제 부분을 들으면 '아 이 음악'이라고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곡이다.

이에 앞선 1부에서는 '대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의 협연도 있다. 조성진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조성진이 라흐마니노프의 뛰어난 기교와 음악적 감수성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사다.

네제 세겐은 "2년 전 유럽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녹음할 때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처음 만났다. 첫 만남부터 금방 서로를 이해했다"며 "그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서 함께 연주할 생각을 하니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7만~32만원이다.

/연합뉴스